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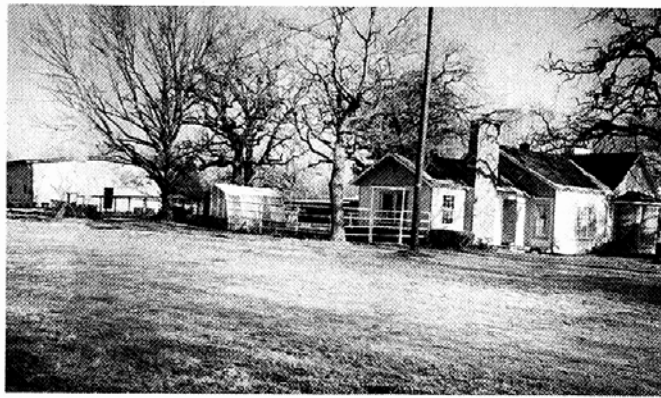
수덕사 미주분원 달라스 태광사 개원

한국禪 미포교 거점 기대

21세기 인류 정신문명의 대안으로 선(禪)을 꼽기에 주저하지 않는 시대적인 흐름속에서, 경허·만공으로 맥을 잇고 있는 정통 한국 선불교가 미 대륙에 상륙했다. 덕숭총림 수덕사 미 대륙의 분원인 달라스 선센터 태광사(太光寺)가 지난 1월30일 개원한 것. 수덕사 수좌이며, 조계종 중앙종회의장을 역임한 설정스님을 회주로 한국 교민을 비롯해 미국인들에게 한국 선의 진수를 전파하는 도량이 선 것이다. 이날 개원법회 부터 현지 불자들은 기대감으로 가득했다. 달라스에 10년만에 보기도 못한 법당이 쏟아진데다, 미국 법회장에서는 이례적으로 한국의 중진 스님들이 대거 참석해 장엄한 법석이 되었기 때문이다. 수덕사 주지 법장스님을 비롯해 중앙종회의원 선광스님(개심사 주지)과 월봉, 정안(청룡사 주지) 해찬(문수사 주지) 수경(송암사회주) 수범(안국선원 주지) 법종(송암사 주지)스님 주경스님(보석사 주지) 등 10여명의 한국 비구 비구니 스님들이 열렬하고 축원했다.

드넓은 블랙랜드 평원으로 광활한 미 대륙을 실감케하는 달라스. 통칭 'Big D' 라고 불리는 미국 남서쪽 금융 재정의 중심지인 달라스의 심장부 다운타운에서 약 30분 거리의 파머스트드에 위치한 태광사는 1만8천여평의 대지에 70평의 법당과 50평의 요사채가 들어서 있다.

설정스님은 치병차 미국에 온 인연이 1년도 안돼 절 불사를 하게 된 것이다. 절 불사는 절로 이루어지는 것이라 하듯, 태광사 불사는 귀한 인연들로 4개월 여 만에 완성됐다. 뉴욕과 필라



◇美 달라스 태광사 전경. 신축한 법당(왼쪽건물)과 요사채를 갖춰

대지 1만8천평...법당·요사 갖춰

델피아 신도들을 중심으로 현지 불자들이 정법을 만날 수 있는 도량을 세우자고 마련한 시주금에다 덕숭총림 차원에서 법당에 봉안된 불상과 후불탱화 신중탱화와 불사금이 담지했고, 설정스님 개인 약값까지도 보태졌다.

현지 교민불자들 1백50여명이 참석한 개원법회는 1시간여 불불 점안 의식에 이어 1시간 여 법당 낙성식으로 진행됐다.

재미 한국불교계를 대표해 축사를 한 뉴욕사암연합회장 휘경스님(불광선원 주지)은 "미국 중남부에서 큰스님들을 모시고 개원법회를 하리라고는 생각도 못한 감개무량한 일"이라며 태광사 개원은 미국 내 한국 불교의 커

다란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태광사 개원을 바라보는 현지인들은 크게 두가지 의미로 기대하고 있다. 첫째는 스님이 상주하는 사찰이 처음으로 들어섰다는 점에서 한국불교의 명실상부한 수행과 포교의 거점이 확보됐다는 것과, 둘째는 한국 중진스님이 회주로 그 회장에서 깨달음의 한국선 불교를 익히고 전파시킬 수 있다는 자신감이다. 달라스는 5만명 교민사회에 100여개에 달하는 교회 십자가 속에서 사람은 모두 신도들이 운영하는 보현사, 관음사, 금강선원이 전부였다.

위영란 기자
(yryui@buddhapia.com)

인터뷰

“명실상부한 선도량 육성”

수덕사 주지 법장스님



“모든 것이 인연법입니다. 수덕사 수좌이시고 한국불교계의 중진이신 설정스님이 건강 때문이었지만, 틀림없이 미국에 와야했던 시절인연이 있었던 것이며 마침내 태광사 회주로서 그 회장에서 정법이 퍼져나갈 것으로 봅니다.”

덕숭총림 첫 해외분원인 달라스 선센터 태광사 낙성법회에 총림을 대표해 참석한 수덕사 주지 법장스님은 직접 부처님 점안의식도 집전했다.

“태광사 주지 법장스님은 내 외연을 고루 갖춘 출중한 인재로 젊고 패기와 의욕에 차 있습니다. 부족한 경험은 30년 가까이 달라스에 살면서 신행생활을 하고 포교활동을 해온 석자언보살이 기획실장으로 역할할 것이고 또 신도들의 신심으로 충족해 나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스님은 태광사가 달라스 선센터라는 이름에 걸맞게 선을 강의하고 수련하는 도량으로 면모를 다져나갈 것이라고 기대했다.

“美불자 깨달음 욕구 부응”

태광사 회주 설정스님



“98년 11월 몸이 불편한 상태에서 12대 마지막 종회를 마치고 출연히 미국으로 떠나왔습니다. 사부대중에 게 아프다는 모습을 보기가 싫었고 수행자로서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와이에서 모든 반연을 끊고 홀로 생각하며 지냈습니다.”

오로지 목숨을 다해 정진해야겠다는 원본입니다.” 큰 수행의 결과도 좋았지만, 미국 불자들의 참 모습을 살필 수 있었던 것이 스님에게는 더욱 값진 결실이었다. 깨달음에 대한 갈망은 크지만, 바르게 일깨워주는 인연처가 많지 않다는 것이다.

“뉴욕에서 또 휴스턴 병상에서 나도 공부하고 정진하면서, 가르쳤습니다. 담담의사와 시작한 불교 공부와 수행이 다른 의사를 그들과 인연지은 변호사 물리학 박사 교수 등으로 확대해 팀이 결성된 것입니다.” 스님은 절대 자유 광명의 안심명의 경지에 도달하는 한국 선의 진수를 퍼졌다고 밝혔다.



◇동인거 결제일에 맞춰 시작한 한마음선원의 토요일선법회에 동참한 5백여명의 불자들이 법당안을 가득 채웠다.

“주장자는 스스로 만드는것” 깨달음 향해 정진...정진...

한마음선원 동안거 법회 5백여 대중 주말 가부좌

“깨달음은 불보살님게서도 대신 해주지 않습니다. 꽃이 피도록 비가 내리지 않듯, 비가 꽃을 피우지는 않습니다. 불성이 있지만 닦지 않으면 허깨비입니다. 주장자는 스스로 만들어서 쥐고 가는 것입니다. 허리를 쭉 펴고 눈을 코끝을 향하도록 하십시오.”

이어 축비소리가 법당 안에 울려 퍼지자 숭소리조차 멎었다. 활판을 힐끗 당기듯 침묵과 평평한 긴장감이 감돈다. 나와 표적의 욕망만이 존재할 뿐이다.

12일 저녁 7시, 안양 한마음선원 3층 법당 안을 가득 채운 5백여명의 채가수행자들. 매주 토요일이면 열리는 동안거 좌선법회(지도법사 해량). 지난 해 11월 20일 스님들의 동안거 입재에 맞춰 재가 불자들이 수행의 고비를 겪었다. 안거에 든 스님들처럼 매일 수행에 전념하지는 못하지만, 토요일 저녁이 되면 법당에 가부좌를 틀고 앉았다. 지난 해 12월 31일과 1월 13일에는 새해와 성도절을 맞아 철야정진을 했다.

애초 토요일선법회는 한마음선원의 거사모임인 법행제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했다. 개시권에 좌선법회가 있음을 알리고 처음 열리는 법회에 4백여명이 모였고, 좌선법회를 제안했던 유선재 법행제

회 기획부장은 “재가불자로서 수행하시는 스님들과 한마음으로써 안거기간 동안에는 좀 더 깨어있는 나날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며 “수행에 남녀와 노소의 구별이 없고, 수행에 대한 욕구가 매우 큼을 알 수 있었다”고 말했다.

토요일선법회에는 안양 한마음선원의 모든 스님들도 자리를 함께 했다. 50분 좌선, 108배, 다시 50분 좌선, 중간에 주지스님인 해원스님의 짧은 법문, 단선시간으로 2시간 동안 진행됐다.

해원스님은 지금 이 자리를 뛰어넘어야 한다고 늘 당부한다. “바쁜 시대에 사는 우리가 좌선만 하고 있을 수 있나. 화장실 가서 잠깐 한생각 관찰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생활 그대로가 참선이 되어야 합니다.”

짧은 기간이었지만 신도들에게는 큰 변화의 계기가 되고 있다.

“남편과 함께 습(習)에 대해 공부하고 있는데, 좌선을 하다 문득 ‘남편이 나의 거울이구나’, ‘남편을 통해 나를 관(觀)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이 나의 거울이라는 자성회들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참선을 하면 밖으로 끄달리던 마음이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더욱 정진하세요. 높은 곳에 오르기 위해서 자기라는 짐을 자꾸 내려놓아야 합니다.” 토요일선법회는 19일 동안 거 해제에 맞춰 회향한다. 이후에는 회수를 더 늘릴 계획이다. 정성운 기자

“집착 끊고 자유 찾았어요”

대불련 80명 명상등 다양한 수련체험

평상시 자신의 신체를 잊으며 건강한 육신에 감사한 마음을 가져 본적이 과연 몇 번이나 될까.

1월23일부터 5일간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회장 이항노이하 대불련) 주최로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충북괴산 다보수련원에서 열린 제9차 대불련 수행학교 ‘작은 변화에서 큰 깨달음으로’에서는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일상 생활의 모습을 점검해 보며 이타행을 실천할 수 있는 수련 프로그램들로 가득차 있었다. 친교 프로그램 위주로 일관해 오던 과거와는 달리 이번 행사에서는 ‘여러명이

모여 함께 울고 웃기’ ‘자신에게 보내는 발원문 작성’ ‘목욕하며 자기 성찰하기’ ‘애장품 집착 끊기’ 등 일상생활과 연계한 프로그램들로 꾸며졌다.

특히 참가자들은 평소 자신이 가장 소중한 여기는 물건을 타인에게 보시하는 ‘애장품...’ 순서를 통해 물건과 사물로부터 집착을 끊는 것이 얼마나 자유롭고 충만한 생활인가를 몸소 체험할 수 있게 돼 보람 있는 시간이었다고 입을 모으기도 했다. 또 여러명이 함께 모여 각 개인의 기분에 상관없이 정해진 시간 동안에 똑같이 울고 웃기를 반복한 이색



◇ ‘작은 변화에서 큰 깨달음으로’를 주제로 열린 대불련 수행학교.

적인 공동체 프로그램도 호응을 얻었다. 이외에도 ‘자신을 괴롭게 하고 슬프게 하는 원인이 무엇인가를 바르게 알아 괴로움과 슬픔으로부터 벗어나는 실천이 바로 수행’이라는 백남석 지도법사의 수행론 강의도 많은 박수 갈채를 받았다.

김주영기자

최봉수 교수와 함께하는 경전강좌 근본불교 대강좌(3년과정)



그동안 동산불교대학에서 <근본불교개설 강좌>, 동산 전문연구원에서 <아함경>을 강의했던 최봉수 교수님의 특별 경전코너인 <근본불교 강좌>를 개설합니다. 특히 이번 기회에 소송과 대승경전을 체계적으로 배울 불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 1.강의일시 매주 목요일 오후 4시
- 2.교육장소 동산교육회관 (안국동 로타리 웅천갤러리 2층)
- 3.개강일시 2000년 3월 9일(목) 오후 4시
- 4.모집내용 주간반 · 통신반
- 5.입학금 100,000원
- 6.특 전 3년과정을 이수한 자에게 흥법사를 수여함

※ 근본불교 (아함경→ 금강경→ 법화경→ 화엄경십지품→ 무량수경)

본 연구원 사무국 (서울 종로구 견지동 13)
☎ 02)732-1206~8 / FAX 02)732-1207

동산불교 전문연구원

주부·직장인을 위한 불교대학(2년과정)

불교의 대중화와 대승불교 사상을 널리 알릴 사명감 있는 포교사를 양성기 위해, 교계 대덕스님 및 교수들 초청하여 불교의 분야별 교육과 직장인을 위한 2년 과정을 개설!

■ 모집기간 : 년2회(매년 2월,8월)
■ 모집정원 : 200명

1. 교과목
 - 1년 교과목 불교학개론·선종사상·불교미술·말교사상·포교방법론·근본불교·대승불교·비교종교론·불교상당론
 - 2년 교과목 인도불교사·중국불교사·한국불교사·유식사상·정토사상·법화사상·반야사상·화엄사상·불교사회복지론
 2. 정규반, 주간반, 통신반
 3. 문 의 처 ☎ 02)732-1206-8 / FAX 02)732-1207
 4. 특전사항
 - 조계종 포교사 고시 거쳐 포교사 자격증 취득
 - 동국대 불교대학원, 동산불교대학 입학추천
- 대한불교 조계종 동산불교대학

김재일법사와 함께하는 알기쉬운 불교교리 강좌개강

본회에서는 불교를 처음 찾는 분이나 불교기본교리를 알기 쉽게 공부할 제 9기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강의개요

1.강의일시	매주 수요일 오후 7시(봄반)
2.교육장소	동산법당(안국동 로타리)
3.개강일시	2000년 3월 8일(수) 오후 7시
4.교 과 목	불교의 정의, 불교의 특징, 불교의 분류, 삼보설, 삼과설, 삼법인설, 연기설, 사제설, 수도론, 번뇌론, 반야심경, 불자의 실천덕목, 불교사상 및 사찰예절
5.지도법사	김재일 법사
6.교 재	수강신청자에게 입학담당 제공 (불교의 기본교리, 교리노트)
7.입 학 금	30,000원(반명함판 사진2매)
8.지원자격	제한없음

※ 문의 : 사무국 ☎ (02)732-1206~8 FAX (02)732-1207

서울 종로구 견지동 13번지

대한불교 조계종 동산반야회